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7일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와 부인,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리수용동지, 김계관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인민무력부, 외무성의 일군들, 왕재산예술단을 비롯한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장내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시며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에게 녀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꾸바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관현악 《세계명곡묶음》, 남성5중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모란봉악단의 경음악 《단숨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선과 꾸바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굳건한 동지적의리와 친선의 위대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꾸바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기악과 노래 《판따나메라》, 녀성중창 《까쁘리섬》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상봉하시는 력사적 화폭들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속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의 정은 대를 이어 변함없을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은 조선과 꾸바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세기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위업실현에서 어깨겯고 나아가는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과 형제적 우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김수일, 철도성청년돌격대 대대참모 김수현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철도성 로동자 진은하, 산하단위 로동자 박병선, 4.15총성의돌격대 대원 김란도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건설장에 달려나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있다.

대외경제성 부원 장은정은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는 건설장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외교단사업총국 의사 김순옥은 가정에 돌려주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안고 건설장에서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원 최진심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나가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준비한 물자를 넘겨주고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내세워주는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열의안고 체육성 체육시설관리국 로동자 배왕철은 건설장에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였다.

사회과학원 로동자 정옥성, 보건성 산하단위 지도원 지정애, 조선태권도위원회 로동자 김혜영은 여러차례 가정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성다해 받들어나가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한몸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대통령,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과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통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알 와타니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열》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뛰르끼예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체스쵸슬로벤스쵸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전국지도자,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민주풍고공산당 총비서, 민주풍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찔르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찔트사랑애국뿔럭 위원장, 에찔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 칠레공산당(프로메따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인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 비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전련맹불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스위스이딸리아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찔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단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뿔럭불가담학생청년조직 총서기,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과 조정서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베하는,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사우디 아라비아, 수리아,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 까타르, 끼르기즈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슬로벤스쵸, 체스쵸, 프랑스,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딸리, 세네갈, 잠비아, 민주쭝고, 뚜니지, 앙골라, 우간다, 에찔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뻬루, 에파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을 세계가 경탄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스웨리에의 공산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단마르크의 공산당 국제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